



리오프닝(Re-opening), 다시 여행으로

1. 위드 코로나 시작, 리오프닝의 여파가 확인되는 지표들

- 백신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국면이 시작
- 개별 정부의 봉쇄정책 강도를 나타내는 코로나19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는 위드 코로나 시행 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
- 유럽의 경우 지난 7월 백신여권 도입 이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의 여행수지가 급증하는 모습

2. 국경을 개방한 미국,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항공업종

- 미국은 11/8일부터 유럽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공,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항로를 통한 입국 허용
- 국경 개방 후 미국 여행객수는 '19년 평균치 근접한 수준으로 재차 회복
- 고강도의 봉쇄조치를 시행하던 미국의 국경 개방은 향후 강한 이연 수요로 이어질 개연성. 항공업종에 대한 관심 재고가 필요한 시점

3. 국경 개방의 수혜를 입을 항공화물 운송 업계

- 주요 경제권의 국경 개방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국제 항공화물 운송 업계의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
- 최근 IATA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항공사들은 향후 항공화물 운송 업계의 수익성과 항공화물 수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응답
- 항공업계 수익성 향상을 이끌 발틱 항공화물 운임 지수(BAI) 강세는 연말 소비시즌 여파로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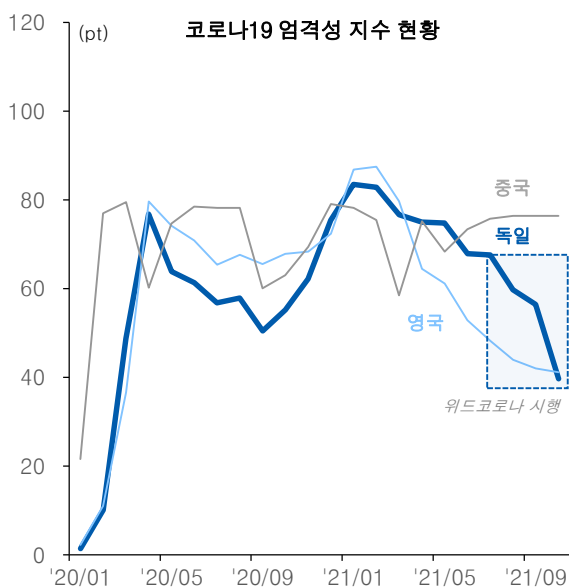
1. 위드 코로나 시작, 리오프닝의 여파가 확인되는 지표들

백신접종률이 높아진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국면이 시작됐다. EU(7/1일, 백신여권 도입), 영국(7/19일, 방역 조치 해제), 미국(11/8일, 제한적 국경 개방) 등 최근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여행 규정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했던 고강도의 봉쇄 조치들을 해제하거나 완화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리오프닝의 여파는 개별 정부가 방역을 위해 시행한 경제활동의 제한 정도(100에 근접할수록 봉쇄정책 강도 강화)를 나타내는 코로나19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행 월을 기점으로 해당 지수가 급격하게 감소(영국 41.2pt, 독일 39.7pt)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중국(76.4pt)을 비롯하여 아직 봉쇄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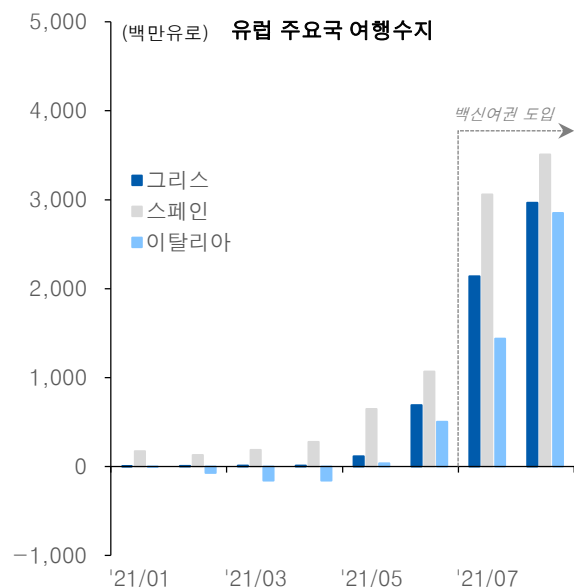
일상을 회복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팬데믹 이후 직격탄을 입은 여행, 항공 업계의 모멘텀 확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유럽의 경우 전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19년 기준 9.5%)이 타 지역 대비(vs 중동 8.9%, 아프리카 6.9%) 높은데, 지난 7월 백신 여권이 도입된 이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의 여행수지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트1] 리오프닝 여파가 반영된 코로나19 엄격성 지수.
10월 기준 영국 41.2pt, 독일 39.7pt (vs 중국 76.4pt)



자료: University of Oxfor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엄격성 지수는 월간 평균으로 산출

[차트2] 지난 7월 백신여권 도입 이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의 여행수지는 급증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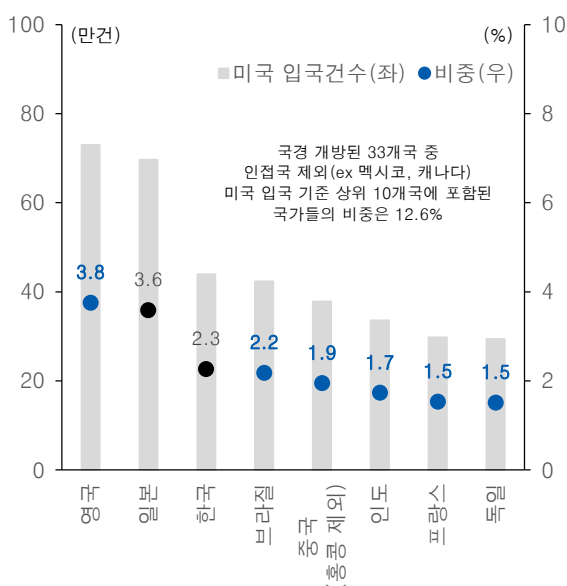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국경을 개방한 미국,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항공업종

미국은 지난 11/8일부터 쉹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공,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을 대상으로 항로를 통한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여행협회(USTA)에 따르면, 전세계 195개국 중 이번에 미국과의 국경 봉쇄가 풀린 국가는 33국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19년 기준 전체 해외 방문객의 약 53%를 차지한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지난해 미국 입국 상위 10위권 안에도 다수 포함되는데 전체 입국건수에서 멕시코, 캐나다 등 국경 인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비중은 12.6%로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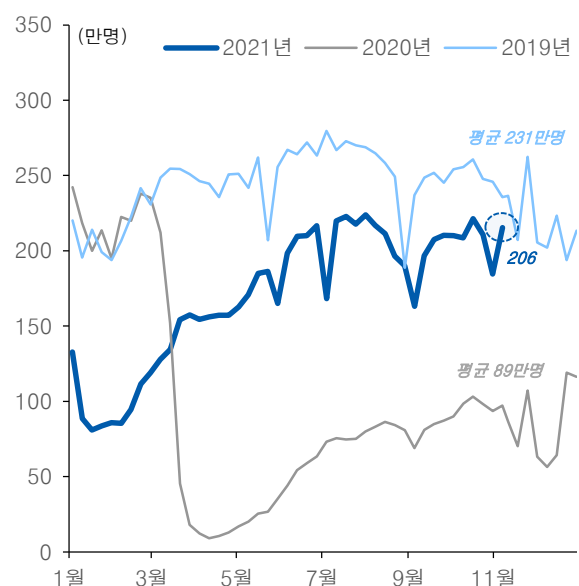
실제로 국경 개방 이후인 11/11일 기준 미국 전역에서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 수는 206.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년 월간 평균 여행객수인 231만명에 근접한 수준이며 '20년 평균치(89만명)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강도의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던 미국이 제한적이나마 해외 여행객들의 입국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강한 이연 수요가 기대되며 국경 개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항공업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차트3] 이번에 국경 개방된 33개국 중 상당수는 지난해 미국 입국 상위 10위권 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



자료: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입국건수는 '20년 기준

[차트4] 미국 3개년 여행객수 추이. 최근 여행객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재차 회복된 모습



자료: 미국 교통안전청(TS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여행객수는 주간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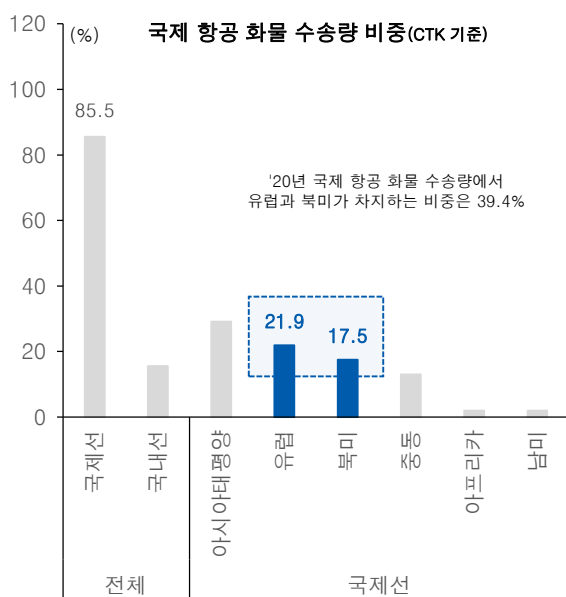
3. 국경 개방의 수혜를 입을 항공화물 운송 업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의 국경 개방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국제 항공화물 운송 업계의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의 국경 봉쇄가 풀린 국가들의 78.8%는 유럽 국가들이며, 국제 항공화물 수송량에서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20년 기준 39.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vs 중동: 13.0%, 남미: 2.0%).

이와 관련해 최근 글로벌 항공사들이 향후 항공화물 운송 업계의 수익성과 항공화물 수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글로벌 항공사 CF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4%는 향후 12개월 내 항공화물 운송업계 수익성 향상을 예상했으며 약 73%는 동기간 항공화물 수요 증가를 전망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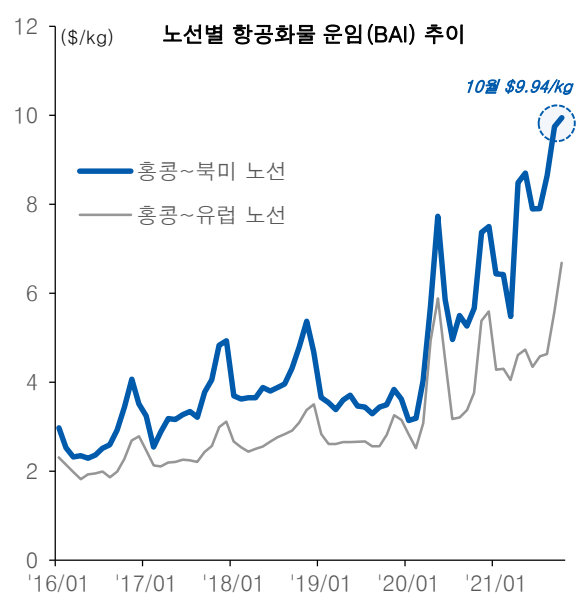
한편, 발틱 항공화물 운임 지수(BAI) 내 홍콩~북미 노선 운임은 지난달 \$9.94/kg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년 평균 5.49달러/kg, '19년 3.53달러/kg). 연말까지 미국의 추수감사절(11/25일), 블랙 프라이데이(11/26일), 성탄절(12/25일) 등 항공화물 수요 증가를 견인할 굵직한 소비 관련 행사들도 연이어 예정되어있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수익성 향상을 이끌 항공화물 운임 강세는 연말 특수 여파를 받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차트5] 유럽, 북미의 국제선 운항 재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국제 항공화물 수송량 확대에 이어질 여지



자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유엔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수송량 비중은 '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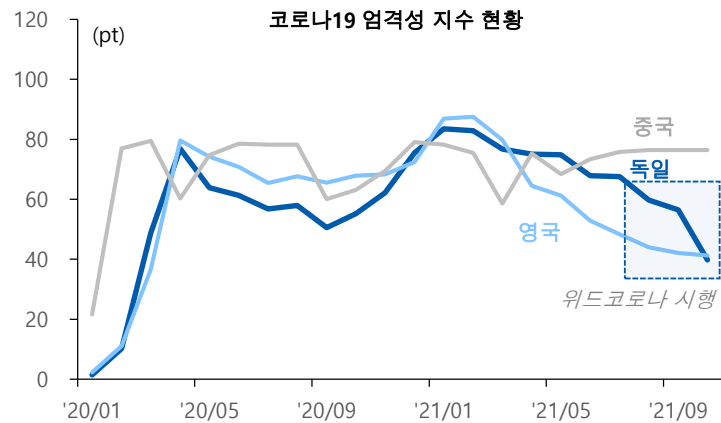
[차트6] 발틱 항공화물 운임 지수(BAI) 강세는 연말 소비 시즌 여파로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



자료: TAC, 유엔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BAI 지수 추이는 월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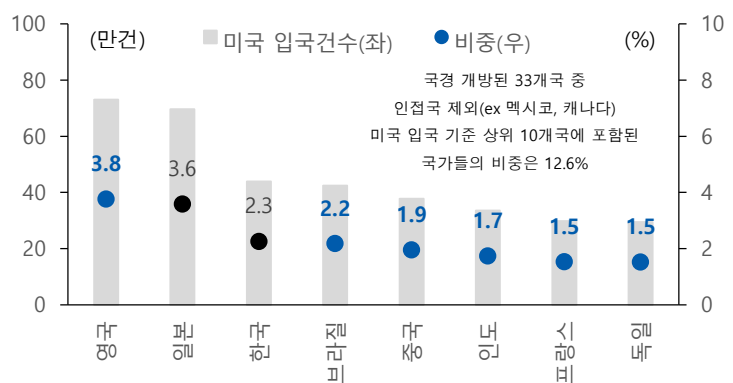
Key Chart

리오프닝 여파가 반영된 코로나19
엄격성 지수. 10월 기준 영국
41.2pt, 독일 39.7pt (vs 중국
76.4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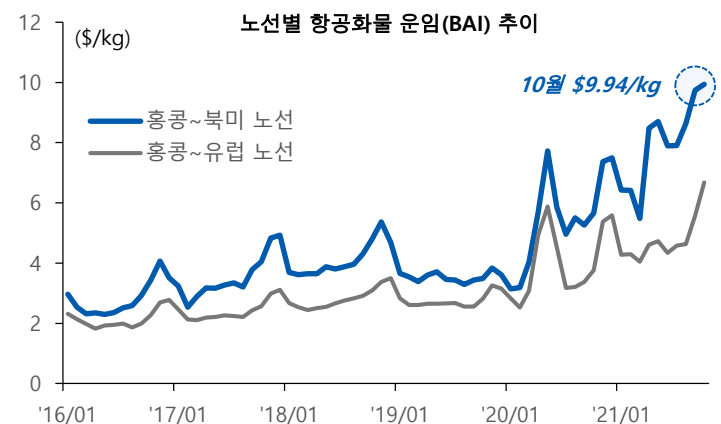
자료: University of Oxfor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엄격성 지수는 월간 평균으로 산출

이번에 국경 개방된 33개국 중 상
당수는 지난해 미국 입국 상위 10
위권 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



자료: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입국건수는 '20년 기준

발틱 항공화물 운임 지수(BAI) 강
세는 연말 소비시즌 여파로 단기
간 지속될 가능성



자료: TA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BAI 지수 추이는 월간 기준